

향교(鄕校)

말자 그대로 시골의 학교라는 뜻이다. 옛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와 함께 지방 백성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지방관의 책임 하에 설치 운영되었던 공립교육기관이다. 익산 지역에도 선조들의 배움터였던 익산향교, 여산향교, 용안향교, 함열향교 등 4개 향교가 남아있다.

선조의 배움터 사색을 즐기다



예로부터 선현들을 배향했던 곳... 익산향교

익산향교는 익산시 금마산 아래 교동마을에 위치해 있다. 태조7년(1388)에 창건된 익산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6년(1628)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향교 정문 옆에는 과거 익산지역 관리들의 공덕비와 선정비등 비석 17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향교를 지키기 위해 도열한 병사들의 모습 같다. 익산향교는 평소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이곳은 다른 향교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선현에 제사지내는 배향 공간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향교 내로 들어서면 교육 공간인 명륜당(明倫堂)과 동재, 서재가 있다. 명륜당의 동편과 서편에 위치한 동재와 서재는 학생들의 기숙시설로서 동재에는 양반들의 자제가 기숙하였고 서재에는 서민들의 자제들이 기숙하며 학문을 수양했다. 향교의 뜰에는 유교 교육을 상징하는 의미의 커다란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수령은 6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익산 향교와 함께 그 긴 세월 자리를 지켜왔다. 담 하나를 더 두고 배향공간으로 넘어가면 대성전과 마당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들을 배향하고 있다.



다른 향교에게서 느낄수 없는 고요함... 여산향교

여산면에 위치한 여산향교의 처음 건립연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조선 태종 3년(1403) 여랑현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른 향교들과 비슷하나 다른 향교들보다 조용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런지 더욱 격막한 느낌이 든다. 향시 개방되어 있는 외삼문을 통해 들어가면 왼쪽에 커다란 은행나무와 함께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는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을 한바퀴 돌아 내삼문으로 들어가면 전방과 좌우에 대성전과 동재·서재가 균형에 맞춰 위치해 있다. 현재의 대성전은 정면3칸 반에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처마에는 부연을 단 겹처마로 되어 있다. 보통의 향교가 3칸의 집이며 각각의 칸에 계단을 가진 것에 비해 이곳 대성전의 계단은 하나뿐인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때 소실되다 영조때 재건립... 함열향교

함열읍에 있을 것 같은 함열향교는 사실 함라면에 위치하고 있다. 함라면 함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뒤로는 함라산을 등지고 1,300평 넓은 부지에 동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된 것을 영조 때에 다시 지었다가 순조 31년(1831)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겨왔다고 한다. 함열 향교 또한 관리상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 내삼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니 다른 향교들보다 약간은 큰 규모이다. 정면에 명륜당과 오른쪽에는 4칸의 동재, 왼쪽에는 3칸의 서재가 있으며 세 개의 건물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일제시대 소멸 위기, 현대에 와서 복원... 용안향교

용안면의 용안향교는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처음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무2년(1897) 다시 중건되었다. 그러나 1927년 화재로 대성전만 남고 모든 건물이 없어지고 대성전터 앞을 용안초등학교에 내어주었다. 대성전만 남아있던 용안향교에 지방민들이 성금을 모아 1961년 명륜당을 지었으며 1982년에는 마을 회의를 열 수 있는 충효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전사재를 복원하여 현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향교와 다르게 용안 향교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수시로 출입하는 여유를 준다.

과거 교육을 담당하였던 장소여서 그런지 향교에 들어서면 방과 후 학교처럼 차분한 느낌이 든다. 처마 밑에 앉아 있노라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취를 느낄 수 있다. 잠시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고 사색을 즐기고자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익산=우병희 기자

